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 EBS 3D 입체다큐멘터리 <신들의 땅, 앙코르>

EBS가 앙코르 문명을 21세기의 영상 속에 복원시켰다. EBS 3D 입체다큐멘터리 <신들의 땅, 앙코르>(이하 다큐멘터리 앙코르)는 축구장 11배 넓이인 앙코르 와트(Angkor Wat, 도시의 사원)의 건축과정을 재연하고, 훼손된 부분은 3D 입체 컴퓨터그래픽으로 복원해냈다. EBS는 이 영상물을 지난 4월 15일 용산cgv에서 3D로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시사회를 열었으며,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EBS 채널을 통해 방영하여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앙코르에서는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앙코르 와트를 짓기까지의 과정과 고뇌, 갈등이다. 사라지고 파괴되어 시꺼멓게 되어버린 유적지들을 3D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과거의 모습에 가깝도록 복원시켰다. 학자들의 조연과 캄보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고증하였으며, 사원의 형태, 컬러, 디자인, 인테리어까지 디테일한 복원이 이루어져 앙코르의 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시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앙코르 와트는 1860년에 프랑스의 동식물학자 앙리무오가 캄보디아 정글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너무나 경이롭고, 웅장하며,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앙코르 와트는 그렇게 세상에 얼굴을 내비쳤다.





### 시놉시스 1: 앙코르 와트

이야기는 12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리아바르만2세는 어려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쿠데타를 통해 선왕을 제거하고 집권에 성공한다. 태양왕이란 의미를 갖는 수리아바르만2세는 등극하자마자 혼란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하고, 그 상징물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사원을 짓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이 앙코르 와트다. 이 프로그램은 지상에 신의 궁전을 건설하고 싶었던 한 위대한 왕의 야망과 앙코르 와트의 건축과정, 그리고 절대적 신왕정치를 바탕으로 태평성대를 누렸던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를 완벽하게 복원해낸 작품이다.

### 시놉시스 2: 제국의 수도, 앙코르 톨

1177년, 앙코르 와트를 건설했던 수리아바르만2세가 죽자 캄보디아는 극심한 내란에 빠진다. 급기야 참파국의 침략으로 앙코르의 왕마저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런 불운에 빠진 크메르를 구할 위대한 왕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자야바르만7세. 그는 나라가 불운에 빠지자 급히 귀국해 톨레샵에서 참파군을 물리치고 권력을 손에 쥘다. 왕위에 오르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도심 주변 12km를 해자와 성벽을 쌓고, 왕궁을 복원했으며, 힌두 바라문들의 내정간섭을 막기 위해 국가종교를 힌두교에서 불교로 전환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앙코르 톨은 완벽한 도시국가면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중앙사원인 바이온 사원을 중심으로 중앙대로가 뻗어나갔고, 수많은 지방도, 수로와 연결됐다. 태국과 베트남에 이르는 총 길이 220km에 고속도로가 건설됐으며, 휴게소와 자선병원이 들어섰다.

이 프로그램은 불운에 빠진 크메르를 구한 자야바르만7세의 영웅적 영적을 그리고 있다.

자료 출처 : EBS 홈페이지